

조규원(드라마 아이리스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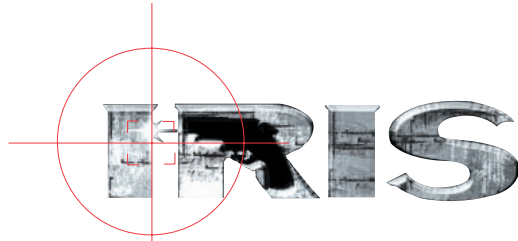
아이리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은 작품이다



작가의 입문과 그동안 해왔던 작품

작가로서의 출발은 출판 만화였어요. 만화 스토리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했죠. 국내 애니메이션 작품은 보통 26부작으로 제작하는데, 순수하게 창작으로 제작하는 작품의 빈도가 얼마 되지 않아요. 재정문제 때문에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작품을 수입하거나 합작을 하죠. 그런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운이 좋았는지 KBS에서 제작한 '마스크맨'이라는 작품을 집필하게 되고, 최근에는 SBS의 '일지매', MBC의 '장금이' 등 여러 애니메이션 작품을 집필하게 됐어요.

그 후, 인연이 되어서 김영현 작가님을 만나 SBS 드라마 '서동요'의 보조 작가로 작업을 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쓰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던 중 태원의 '아이리스'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방송과 영화가 융합되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미국드라마(이하 미드)에도 전환기가 있었어요. 과거의 미드는 ‘맥가이버’, ‘전격 Z작전’, ‘A특공대’ 등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에 ‘로스트(Lost)’의 제프리 제이콥 에이브럼스(Jeffrey Jacob Abrams), ‘씨에스아이(CSI)’의 제리 브룩하이머(Jerry Bruckheimer)가 드라마 제작에 관여하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할리우드의 인력이 들어오고 회당 제작비가 3~4배로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현상을 겪었어요. 그들의 과정을 천천히 짚어본다면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들이 정리되리라 생각돼요.

방송과 영화는 제작환경의 차이가 항상 문제를 동반해요. 일주일에 140시간을 방송하는 드라마 제작 환경과 한 장면을 삼사일씩 촬영하는 영화의 제작환경이 융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아직까지 제작 속도나 조명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젊은 연출들이 나오고,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장비와 운영체제들이 발전하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노력해서 퀄리티가 높은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가 제작됐으면 좋겠네요.

북한과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루는 부담감

기획할 때는 어느 방송사로 갈지를 몰랐고, 북한과의 교류나 해외공작 등 소재가 집필하기에 편안한 소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려 쿨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좋은 작품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녹여 넣어 볼까도 생각했는데, 잘못하면 시청자들이 시대적 현상을 편향되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립적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했어요.

제작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김승우(박철영 역) 씨와 김소연(김선화 역) 씨가 북으로 돌아가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인천대학교에서 북한이라는 설정으로 촬영을 한 건데, 두 배우가 대화하는 뒤로 진짜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감독님이 대본에 없던 걸 보강해서 실제로 달았다고 하는데 세상의 변화에 직격탄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젊은 계층은 “뭐 어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년 계층은 “말도 안 될 일”이라고 펄쩍 뛸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요즘의 젊은 친구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고민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생각들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북한은 늑대나 악마로 표현됐는데, 북한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면서 박철영에게 집중하게 됐어요. 북한이 빈곤하다 해도 박철영이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음악과 미술에 조예가 깊으며, 부유하게 자랐다면, 지배 계층으로 멋진 슈트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김승우 씨의 의상이나 소지품에 많은 신경을 썼고, 부담감을 넘어서 인물들의 세부적인 심리를 표현하는데 더욱 집중했어요.



광화문 총격전의 다양한 시선들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총격전을 버리고 싶다는 그림을 그려 놓고 여러 후보들이 거론됐어요. 그런데, 서울의 상징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광화문이라는 답이 나온 거죠. 섭외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어요. 서울시에 서 많은 고민들을 했죠. 시민들의 집회는 막으면서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교통까지 통제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견부터, 이번의 선례로 앞으로 광화문을 사용하겠다는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원 및 교통의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우려들이 있었죠. 힘든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고 총격전이 촬영돼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쉬움이 있었죠. 날씨가 좋았더라면, 좀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욕심이 남더라고요. 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더욱 퀄리티 높은 장면이 연출됐을 거라는 확신과 미련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가 어느 정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LA 다운타운에 가면 1년 내내 골목 어디에선가 영화를 찍고 있어요. 사람들이 통행하는 옆에서 새로운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는 거죠. 심형래 감독이 '디워'를 찍을 당시 미국의 도시 한복판 헬기와 탱크를 동원하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찍을 수 있던 문화가 한국에서도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심을 혼든 사탕키스

사탕키스 장면은 이병헌 씨의 아이디어고, 실제로 대학교 때 경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멜로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죠. 이 장면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그것도 잠깐 두 배우의 물오른 연기로 짜릿한 떨림을 영상으로 담아냈죠.

그 외에도 러브 씬에 대해 다양한 아이템을 주고, 상황에 따라 애드리브로 진행된 것이 더 좋은 앵글을 만들어 내기도 했어요. 배우들은 역할이 주어지면 그 캐릭터에게 몰입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연기가 드라마에 맛을 살려주더라고요. 방송분에는 편집이 됐는데 이병헌 씨가 김태희 씨를 안고 눈발에 쓰러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병헌 씨가 “나 이러다 등 얼겠다”라고 하니까, 김태희 씨가 장난 어린 눈빛을 지으며, 이병헌 씨를 일어나지 못하게 꼭 누르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잡고, 아이리스가 사랑받는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

아이리스에서 아쉬움을 남긴 인물

정준호 씨가 맡은 진사우 역이 아쉬움을 남겨요. 어느 순간인가 정준호 씨의 캐릭터가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는 뭐야?” 친구와 나라를 배신하고, 그렇다고 아이리스 조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진사우가 존재하는 목적성을 잃은 거죠. 대부분의 배우들이 본인의 캐릭터가 불분명하면 전화를 많이 하는데, 드라마 중반쯤 정준호 씨가 식사를 하자며 찾아오셨더라고요. 드라마 초반 때보다도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연기를 하면서 캐릭터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계속 있었던 거죠. 정준호 씨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리스 조작과의 끝없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언더커버로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데, 드라마가 바쁘게 진행되면서 작가들도 방향을 잃은 거죠. 진사우는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안타까움을 주더니, 아직도 아쉬움을 남기네요.

이병헌(김현준 역)의 죽음

김현준의 죽음에 대한 영상은 아쉬움이 있어요. 꼭 죽어야 했는가라는 결말에 대한 다양한 논의부터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죽일 것인가까지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작진에게는 시간이 없었고, 그로 인해 김현준의 죽음은 큰 아쉬움을 남겼죠. 콘티상에는 저격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면을 한 저격수를 누구로 할까라는 의견도 분분했어요. 정우성, 신현준 씨부터 이병헌 씨와 친분이 있는 기무라 타쿠야까지 많은 인물이 거론됐어요. 저격수를 노출시킴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시즌2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심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에 쫓겨 도려 실수까지 하게 됐죠.

총알이 차창을 지나 이병헌 씨를 관통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반대로 표현되면서 따끔한 충고들이 쏟아졌죠. “총알이 바다에서 날아왔냐?”, “배에서 쏜거다.”, “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등 시청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작가들은 자신이 집필한 작품이 제작에 들어가면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못 봐요. 응원의 메시지도 있지만, 상처를 주거나 드라마의 구성이나 전개과정에 대한 개입까지 글이 농염해지죠. 드라마가 끝나고서야 글들을 읽으면서 미흡했던 점을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다음 작품을 준비할 때는 큰 밑천이 되죠.

작가의 바람

드라마 제작에는 사전제작 방식이 있지만,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사전제작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질 좋은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질문해 보니, 주 1회 방송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답을 얻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엔가 회당 45분을 넘어 60분, 70분짜리 드라마를 주 2회로 당연하게 편성하고 있어요. 미드나 일드가 주 1회 방송을 하는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 제작의 퀄리티와 내용이 향상되고, 시청자에게 여러 콘텐츠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거죠.

또한, 우려되는 것이 주 2회 편성이 시청자들을 미디어에 너무 몰이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시청자들로 하여금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미디어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위험해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면 소재가 없다는 것은 슬픈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중독된다는 것은 정말 두렵죠.